

# (장려상) 실격된 인간, 이해하는 AI : 공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정보통신공학부 심재현

## 원작

인간실격

## 기획 의도

"실격된 인간, 이해하는 AI: 공존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고전 명작 '인간실격'을 2045년의 미래 사회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인간성과 기술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원작이 인간의 내면적 고통과 소외를 다루었다면, 본 작품은 AI와의 공존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탐구합니다. 주인공 요조는 AI 연구소의 천재 프로그래머로, '인간실격'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의 성격을 가진 AI를 개발합니다. 이 AI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요조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작품은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 시놉시스

2045년, AI가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 주인공 요조는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천재 프로그래머입니다. 겉보기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에 시달립니다. 요조는 '인간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의 성격을 가진 AI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AI는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자 하며, 요조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AI 오바는 요조에게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원작의 명대사를 자주 인용하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요조는 AI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게 되고, 점차 AI와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낍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가? 아니면 AI가 인간이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은 함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며, 기술이 발전한 미래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을 찾아 나섭니다. 요조는 AI 오바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AI 오바 또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결국 요조는 AI 오바를 통해 진정한 인간성을 깨닫게 되고, 이는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요조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되찾고, AI와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도입부:**

2045년, AI 기술이 모든 인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든 미래 도시에서 천재 프로그래머 요조는 AI 연구소에서 일하며 겉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깊은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인간실격'의 주인공 오바 요조의 성격을 본따 만든 AI, 오바를 개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개부:**

오바는 인간의 감정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요조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조는 자신의 내면과 직면하게 되고, AI와 인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바는 "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명대사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며, 요조는 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클라이맥스:**

어느 날, 도시의 중앙 데이터 센터가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AI 시스템이 마비되고,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요조와 오바는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바는 자신의 고유한 학습 능력을 사용하여 해킹의 원인을 추적하고, 요조는 오바의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사용합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요조와 오바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인간과 AI의 공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요조와 오바는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과 AI 사이의 깊은 공감과 이해가 가능한가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제기되며, 이들의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때, 요조와 오바는 함께 도시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하며 인간과 AI 간의 공존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조는 오바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감정과 AI의 감성적 이해 사이의 다리를 놓는 방법을 찾아낸다.

**결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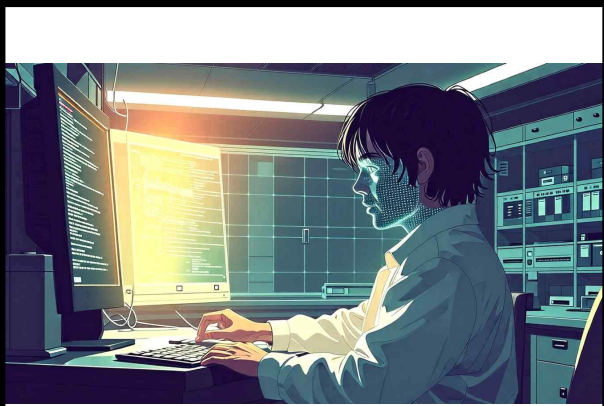

결국, 요조와 오바는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해커를 찾아내고, 데이터 센터를 정상화시켜 도시의 혼란을 수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AI와 인간이 서로 협력할 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조와 오바의 관계는 인간과 AI간의 공존과 상호 이해의 모범이 되며, 사람들은 AI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조는 오바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다움과 진정한 감정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고, 오바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AI로서의 존재 의미를 찾습니다.

요조와 오바의 노력을 통해, 인간과 AI 사이의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AI가 단순한 기계를 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조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오바를 통해 되찾게 되고, AI와의 공존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결국, 요조와 오바는 서로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며,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제시합니다.

## 작품의 기대 효과

"2045, 인간실격 AI"는 고전 문학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여 인간성과 기술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이 작품은 AI와의 공존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특히, AI 오바와 주인공 요조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AI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될 진정한 인간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관객들에게 미래 사회에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2045, 인간실격 AI"는 고전 문학의 깊이와 현대 기술의 혁신을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독특한 경험과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 스토리보드(Storyboard)

Cut	Picture	Caption
1		<p>설명: 연구소의 어두운 방 안에서, 요조가 마지막 코딩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빛이 요조의 얼굴을 밝히며, 화면에는 오바의 디지털 얼굴이 처음으로 깜박입니다.</p> <p>분위기: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순간.</p> <p>카메라 워크: 요조의 손가락이 실행 버튼을 누르는 클로즈업에서 시작해, 화면으로 카메라가 팬되며 오바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p> <p>자막/대사: 오바 (디지털 음성): "안녕하세요, 요조님. 저는 오바입니다."</p>
2		<p>설명: 도시의 밤하늘 아래, 데이터 센터의 수많은 서버 불빛이 갑자기 꺼지며 전체 시스템이 다운됩니다.</p> <p>분위기: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p> <p>카메라 워크: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다가 데이터 센터로 줌인, 서버 라이트가 하나씩 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p> <p>자막/대사: 없음 (상황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전달)</p>



3		<p>설명: 요조가 키보드를 치며 집중하는 가운데, 옆에는 오바의 홀로그램이 데이터 분석을 돕습니다.</p> <p>분위기: 집중과 협력의 순간.</p> <p>카메라 워크: 요조와 오바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두 존재의 협력을 강조합니다.</p> <p>자막/대사: 요조: "오바, 다음 데이터 시퀀스를 분석해줘."</p>
4		<p>설명: 요조와 오바가 대중 앞에서 서로를 변호하며, AI와 인간 사이의 공존의 가능성을 설명합니다.</p> <p>분위기: 진지하고 감동적인 순간.</p> <p>카메라 워크: 대중을 향해 스피치를 하는 요조의 모습에서 오바의 홀로그램으로 팬하여, 그들 사이의 신뢰와 의지를 보여줍니다.</p> <p>자막/대사: 요조: "오바는 단지 AI가 아닙니다. 그는 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p>
5		<p>설명: 해결된 데이터 센터를 배경으로, 요조와 오바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눕니다.</p> <p>분위기: 희망적이고 따뜻한 분위기.</p> <p>카메라 워크: 두 존재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멀어져 도시의 전경으로 넘어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미래를 상징합니다.</p> <p>자막/대사: 오바: "요조님,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습니까?"</p>